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ETWEEN TWO EVILS

가제 : 두 악마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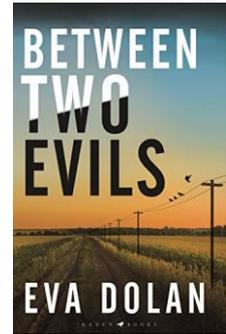
저자 : Eva Dola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소설.” - 베스트셀러 『In a House of Lies』의 저자 이안 랜킨

한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캔브리지셔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의 열기로 신음하던 어느 날, 조슈아 아인스워스 박사가 자신의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몸 곳곳에는 구타의 흔적이 남겨 있었다. 이 시기의 캔브리지셔의 회사나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갔고 가정 폭력, 사기 같은 범죄 사건들이 유난히 증가하고 있었다.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악명 높은 밀입국자 수용 센터를 두고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시위대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성 밀입국자 수용 센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던 조슈아 아인스 박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과 박사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페레이라 경사와 수사관 지각은 피해자가 죽기 며칠 전 남긴 행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페레이라 경사와 수사관 지각은 원래 혐오 범죄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혐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은 현상유지만 간신히 하는 정도였다. 페레이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직업적 환멸감마저 느끼던 중 장기휴가를 보낸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휴가 후 첫 출근 날, 지각은 악명 높은 트랜스젠더 혐오자인 월튼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월튼 사건은 무려 동료들이 18 개월동안 매달렸던 사건이었고 월튼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트랜스우먼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 법의학 기술자의 뇌물 수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BBC 다큐에서 20 여년동안이나 명성을 떨치며 활동했던 DNA 분석가가 여태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월튼과 관련된 증거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월튼은 다른 법적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곧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페레이라 지각은 일단 최근 발생한 조슈아 아인스워스 박사 살해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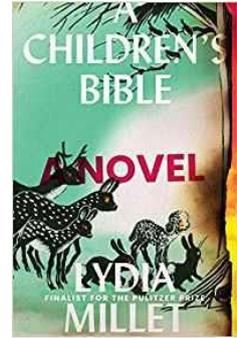
피부 상태와 매캐한 냄새로 보아 아인스워스 박사는 죽은 지 며칠은 지난 것 같았다. 시체 주위에는 피자 박스와 와인 잔, 콘돔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하지만 집 어디에도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살해 현장 주변에 널려진 식사 흔적을 봤을 때 그는 분명 누군가와 개인적인 일로 저녁 시간을 보내던 중 살해당했을 확률이 높아 보였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에 휴가에서 돌아온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사는 이미 휴가 전부터 몇 주간 휴직계를 낸 상태였다. 이웃들은 박사는 혼자 그 집에서 지냈고 간간히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찾아왔다고 했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발견 된 여자 속바지와 와인잔에 있는 립스틱과 콘돔에서 발견 된 DNA 로 볼 때 그날 저녁 박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여성일 확률이 높았다. 또 다른 수사관 젠킨스는 부러진 테이블과 박사의 몸에 난 상처로 보아 박사가 테이블 다리에 잔인하게 맞아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으로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기엔 좀 의심쩍은 추측이었다. 게다가 박사의 집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박사가 남긴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처럼 그의 핸드폰도 태블릿 PC 도 노트북도 다 사라진 채 충전기들만 남아 있었다.

페레이라는 일단 박사가 일했던 수용소 주변을 돌며 박사에 대한 정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수용소 근처 상점 주인은 이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이 수용소를 둘러 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수용소 직원들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거나 공격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수용소는 시큐리티팩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회사에서는 수용소 공무원을 도울 직원들을 더 늘렸고 몇 달 전부터 마을 자판기의 샌드위치들도 다 이 회사의 식품 업체 계열사의 것으로 교체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만약 아인스워스 박사 살인 사건이 이 수용소에서 그가 맡았던 일들과 연관이 있다면 시위대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다음 날 페레이라는 박사의 집 서재를 살피는 중 의문의 전단지들을 발견했다. 전단지에는 수용자들로 보이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이 있었고 그들의 구금 날짜와 석방을 요구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또한 전단지에는 수용소 내 자살 율에 대한 내용과 불려처리 된 수용소 경비원들의 사진, 수용소 내 학대 사건 리스트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페레이라와 지각은 박사와 전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이 지인 미카엘라를 만나 박사가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을 폭로하려다 살해 당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왈튼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 그를 해코지하기 위해 거짓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트랜스 젠더 혐오자인 월튼과 박사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박사를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회적 갈등과 혐오 문제를 모티프로 한 현실적인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에바 돌란 (Eva Dolan)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는 범죄 작가 중 한 명이며 세 번이나 'Theakstons Crime Novel of the Year'에 선정 된 바 있다.

제목 : A CHILDREN'S BIBLE
가제 : 두 번째 종말
저자 : Lydia Millet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술과 향락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 안주해버린 어른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십대 청소년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며 벌어지는 독창적인 이야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곧 중학생이 될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부모들을 따라 한 호숫가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폭풍우가 이곳을 휩쓸게 되었고 점차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거의 강제로 이곳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모들은 밤이든 낮이든 섹스와 마약에 빠져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오직 저녁 식사 자리에서만 한 가족이 겨우 모이곤 했는데 이브는 부모님의 하찮은 이야기를 듣다가 지루하다 못해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겨우 참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들 중에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 들어 은밀한 호기심을 품게 된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이들이 형편없는 부모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브는 어느 때처럼 광란의 밤을 보내고 동생 잭이 뒤척이는 소리에 걱정이 되어 눈을 떴다. 하지만 예상외로 잭은 아직 잠이 덜 깬 누나에게 대뜸 자기가 읽고 있던 어린이용 구약 성서를 보여주었다. 잭은 이브에게 이 책의 내용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아름다운 정원에서 추방당하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곳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칠 거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잭과 셸은 카누를 타고 호수를 가로 질러 건너편 숲으로 나갔다. 셸의 누나인 젠과 이브는 그들이 도통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숲으로 갔다. 잭과 셸이 타고 나간 카누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었고 다행히도 두 아이들은 숲 속에 자신이 만들어 둔 나무 집 안에 있었다. 이브는 나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는 상자들을 보고 잭에게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 물었다. 잭은 성경에서 노아가 그랬듯이 홍수를 대비해 가져온 것들이라고 답했다. 당황한 이브가 어서 이곳을 떠나자고 말하자 잭은 성경 속 노아가 그랬듯 홍수가 나기 전 이 숲의 동물들부터 어서 구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아니나 다를까 상자에는 여러 개의 구멍들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갈색 털과 동물들의 주둥이가 보였고 안에서 파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새장도 두어 개 있었다. 잭은 정말 진지하게 며칠 동안 이곳으로 동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젠이 잭의 팔을 잡고 강제로 나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잭과 셸은 주머니에서 장난감 수갑을 자신들의 팔목에

한쪽씩 끼우더니 나무 집 기둥에 자신들의 팔을 고정시켜버렸다. 이브와 켈은 자신들의 남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나무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에게 메시지로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렸다. 날씨 어플을 켜보니 이제 곧 폭풍이 몰려온다는 경고 표시가 떠 있었고 아이들은 우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잭은 이브에게 나무 집 속 작은 동물원을 구경 시켜주었다. 그리고 곧 이어 나무 밑에서 수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브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비에 우산까지 쓰고 온 레이프, 테리, 디, 로우, 주이씨가 나무 집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이브는 너무 지친 상태였고 아이들을 다시 별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나무 집을 확장 하기 위해 지붕에 더 넓은 방수 천막을 설치했다. 말은 안했지만 엑스터시까지 손을 댄 부모들을 피해 무작정 이곳에 온 것이 분명해보였다. 이윽고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나무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호수 위로 간 밤에 쓰러진 나무들이 동동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나무집만큼은 여전히 굳건히 서있었다. 다행히 곧 비가 그쳤고 물이 좀 빠지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둘째 날, 아이들은 쌍둥이 자매인 케이와 에이미가 실종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잭과 셸은 쌍둥이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뼈 조각들과 인스턴트 음식 봉지가 가득한 낚시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케이를 발견했다. 잭이 보기에 그 뼈들은 마치 방금 전에 살과 가죽이 벗겨진 것만 같았다. 게다가 케이의 입 주변에는 시뻘건 피가 말라 붙어 있었고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풍겼다. 잭과 셸은 일단 케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주었지만 에이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다시 다음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호숫가 옆 잔디밭 위에서 펄떡거리고 있는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죽은 물고기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고 장례식까지 열기로 했고 잭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추도사를 읊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아이들은 호숫가 갈대 숲에 부서진 작은 뗏목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몸집이 작은 한 남자가 누워있었고 아이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 갔다. 잭은 성경 속 모세 이야기처럼 그 남자가 모세 같은 존재일거라고 확신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눈을 뜬 그 남자는 자신을 '발 (Val)'이라고 소개했고 카약이 뒤집히는 바람에 이곳까지 실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 발과 벌 (Burl)은 나무 위에 올라 갔다가 저 먼 숲이 온통 주황색 덩불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잭은 그것이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곧 이 숲 전체에 퍼질 것이란 징조라고 경고했다. 벌은 아이들에게 그 병든 숲으로 가보자고 제안했고 몇몇 아이들은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잭의 말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카인과 아벨, 강을 타고 요람에 실려온 모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다시 반복 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드디어 환경 재앙이 코 앞으로 다가 온 것일까?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들 중 우리의 현실과 가장 가까운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리디아 밀레 (Lydia Millet)는 풀리처 상,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후보에 오른 작품인 『Sweet Lamb of Heaven and Magnificence』 열한 권의 소설을 쓴 PEN 상 수상한 작가이다.

제목 : BRAVE GIRL, QUIET GIRL

가제 : 췌, 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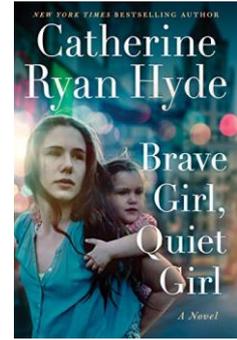
저자 : Catherine Ryan Hyd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5월 19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이혼 후 자신의 딸과 함께 돌아온 딸을 맞이해준 엄마, 눈 앞에서 아기를 놓친 엄마, 어느 날
아기와 함께 살게 된 버림받은 소녀, 세 여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이혼 후 삼십 대 후반의 싱글맘이 된 브룩은 딸 에타를 친정 엄마와 어린이 집에 맡기고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녀는 눈앞에서 에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아기 에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한 소녀 몰리가 어딘가에 버려져 있던 에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 집에서 에타를 집으로 데려온 브룩은 집에서도 도저히 가만히 쉴 수가 없었다. 브룩은 에타와 자신을 기꺼이 자기 집에 받아 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억척스럽고 시끄러운 엄마랑 사는 일 역시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고 이제 겨우 두 살이 된 에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다. 엄마는 평소처럼 볼썽 브룩의 방문을 확 열고 다가오더니 에타를 집에만 두는 것은 결코 아이의 건강에 좋은 일이 아니라며 에타와 밖에서도 시간을 좀 보내라고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브룩은 항상 TV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사는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겸 에타를 데리고 어린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브룩은 LA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니 자기 차를 타고 나가라는 등 컴컴한 영화관 역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등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엄마와 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엄마는 브룩이 차에 올라탈 때까지도 안전벨트 하는 것을 잊지 말라며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늘 안전벨트를 차는 브룩이었지만 웬지 이날만큼은 괜히 엄마에게 반항하고 싶었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채 극장으로 출발했다. 브룩은 이때만해도 LA, 특히 엄마의 집이 있는 이 서부 쪽은 안전한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엄마 말이 맞았다.

브룩은 정말 오랜만에 에타와 단둘이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브룩은 차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에타를 들여다보며 가슴 속에서 모성애가 솟구치는 것을 새삼 느꼈다. 브룩은 이번에도 역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출발했다. 얼마 가지 않아 브룩의 차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서있었고 눈깜짝할 사이에 어떤 괴한이 운전석 창가로 다가왔다. 그 괴한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체로 그녀를 위협하더니 창문을 내리쳤고 결국 운전석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브룩은 페달을 밟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스키 마스크를 쓴 그 남자의 팔이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그리고 겨우 7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인생을 바꿀 그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 과한이 엄마의 차를 몰고 딸과 한밤 중 도로 속으로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브룩은 멍하니 그곳에 한참 서있었다. 그녀는 엄마 말대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것, 순진하게 LA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좀 더 빨리 악셀을 밟지 못했던 것까지 모두 다 후회하고 있었다.

한편 몰리는 바나나 하나를 사기 위해 과일 가게에 가면서도 가슴을 졸여야 했다. 길 위에 사는 소녀에게 이 세상은 전혀 안전지대가 아니었고 과일가게 주인 노인은 언제나 음흉한 시선으로 몰리를 훑어보았다. 몰리는 고의적으로 바나나 가격을 턱없이 높게 부르는 그 노인의 가게를 나와 결국 다른 가게에 갔지만 이번엔 도둑 취급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바나나를 사게 된 몰리는 길 가에서 버려진 카시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몰리는 문득 카시트를 팔면 친구 본디와 맛있는 식사 한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카시트에 다가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이제 막 기어 다닐법한 아기가 누워있었다. 몰리는 아기를 보자마자 자신의 여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기를 안아 올렸다. 몰리는 혹시 아기의 부모가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곳은 길 거리에서 노숙하는 부랑자들 외에는 딱히 평범한 사람들은 살지 않는 산업지대였다. 게다가 주변에는 공중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몰리는 우선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고 본디와 함께 머물고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로 아기를 데려왔다. 은신처로 돌아온 본디는 아기를 보자마자 당연히 놀란 기색이었고 고민 끝에 편의점 주인에게 가서 아기를 발견했으니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기에 대한 정보가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길 거리 삼총사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례금을 노린 그들은 본디에게 아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몰리와 본디는 삼총사가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다른 은신처로 떠났다. 본디는 몰리에게 어떻게든 경찰에게 신고할 법을 찾아올 테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새 은신처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 한 후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 후 본디는 결코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다. 몰리는 본디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고 울고 있는 아기에게 ‘넌 용감한 아이야.’라는 말을 백 번이나 넘게 속삭였다. 그러면 어느 새 아기는 곤히 잠이 들었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삼총사들이 휘파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몰리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낀 아기가 다시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몰리가 아기 귀에 ‘넌 용감한 아이야,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해보자’라고 속삭이자 아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울음을 푹 멈추었다. 하지만 삼총사는 여전히 몰리와 에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몰리는 에타를 무사히 엄마에게 돌려보내 줄 수 있을까? 모성과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에 관한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 (Catherine Ryan Hyde)는 서른 다섯권을 책을 집필한,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가이다. 그녀의 대표작 『Pay It Forward』는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30개국에서 2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제목 : SAFE HOUSE

가제 : 세이프 하우스

저자 : Jo Jakeman

출판사: Harvill Secker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나는 비밀과 거짓말 가득한 이야기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 『The Bone Keeper 』의 저자, 루카 베스테

이른 아침, 한 여자가 코니시 마을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찰리'라고 소개한 이 여자의 원래 이름은 '슈테피'였다. 찰리에게는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사실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외딴 곳인 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과연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슈테피 핀은 그저 남자 친구를 너무 사랑했던 평범한 여자였다. 남자 친구 리 피셔가 에딘버러에 살고 있던 두 아이의 어머니 서른 살 애나 앳킨스와 케이트 포스터를 살해한 살인자로 몰리자 슈테피는 남자 친구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그가 부탁한대로 경찰 측에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리가 일러 준대로, 피해 여성이 실종 되었던 그날 밤 남자친구는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 한 것이다. 슈테피는 그 헌신의 결과로 10개월 동안 감옥에서 짓값을 치러야 했다. 남자 친구가 애나 앳킨스와 케이트 포스터를 살해했다는 경찰 측의 의심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집 지하에 여러 명의 시체를 숨겨둔 연쇄 살인범이었다. 그는 이년 동안 슈테피와 지내며 그녀를 철저히 속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 앞으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혐오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다. 끔찍하게도 연쇄살인마 리는 궁지에 몰리자 자신은 피해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결코 그들을 살해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그 여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테피가 질투에 눈을 멀어 그들을 죽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편지들을 보낸 사람들은 이런 리의 거짓 진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한 마디로 범죄자인 리 피셔의 팬들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슈테피가 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녀가 먼저 나서서 리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슈테피가 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의 우상을 대신해 슈테피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슈테피는 왜 모든 증거가 리가 유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그를 끝까지 믿었는지, 만약 그녀가 리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끊임없이 자신에 질문했다. 교도소 내 상담사인 헤스터 역시 슈테피에게 왜 여태까지 자기 자신 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고 언제나 타인들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는 정말 이전과 달리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싶어졌다.

이제 찰리라는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슈테피는 마을에 얻은 집을 손수 고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슈테피는 여전히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슈테피는 되도록이면 이웃 주민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한편 벤 자비스는 슈테피가 자신의 짓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믿는 리 피셔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다. 벤은 뒤늦게 슈테피가 출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중이었다. 벤은 저녁마다 주로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개설한 인터넷 채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채팅방에 올라온 출소자 목록에는 슈테피의 이름이 없었다. 이곳 회원들은 소아성애자나 아동 학대범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벤은 자기가 스스로 슈테피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벤은 며칠 후 슈테피가 살았던 집이 아직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에 직접 연락했다. 말끔하게 수트까지 차려 입은 그는 부동산 직원과 그 집을 둘러보며 슈테피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운 좋게도 벤은 은행과 연금 회사에서 슈테피의 편지를 발견했고 관리인 몰래 주머니에 그 편지들을 숨긴 채 유유히 그곳을 빠져 나왔다.

슈테피는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잭이라는 새 애인도 생겼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사실이 있었다. 슈테피는 이전보다 체중이 많이 줄었고 머리 색까지 달라졌지만 마커스라는 한 변호사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낯익다며 집요하게 들이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슈테피 집의 창문을 손 보기 위해 잭이 데려온 어떤 젊은 남자 역시 슈테피를 수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잭은 그 남자의 이름 대신 그를 그저 ‘그 청년’이라고 소개했고 그 청년은 슈테피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그녀를 아무 말도 없이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게다가 그는 창문을 고치다 말고 슈테피가 감옥에 가기 전 즐겨 들었던 음악까지 틀었다. 슈테피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다. 어느덧 가을, 슈테피는 바람을 쓸 겸 해안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모래 위에 놓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슈테피의 머리를 내리친 건 과연 벤이었을까? 아니면 마을의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노리는 것일까? 슈테피 역시 남자친구 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일 뿐인 걸까? 과거와 의문의 남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흥미진진한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조 제이크만 (Jo Jakeman)의 데뷔작이자 스릴러인 『Sticks and Stones』는 출판 이후 12개월만에 18,000 부가 판매 되었으며 전세계 여덟곳의 출판사에서 출판 되었다. 『Safe House』는 그녀의 두 번째 작품이다.

NON-FICTION

제목 : DO YOU MIND IF I CANCEL?

가제 : 이 쇼를 취소해도 될까요?

저자 : Gary Janetti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22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인기 TV 시리즈 Will and Grace의 프로듀서의 에세이

* "게리 자네티의 글은 TV 쇼 스크립티든 트윗이든 언제나 예리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이 에세이를 통해 한 예술가로서 그가 가진 부드러움과 내밀한 모습을 보는 일 또한 역시 너무나 즐겁다."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Crazy Rich Asians 』의 저자, 케빈 쿤

이 책의 저자 게리 자네티는 미국 쇼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듀서이자 수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토록 다재 다능한 그가 일상 생활의 애환과 절망의 순간들을 유쾌한 글 솜씨로 담아낸 책이다.

이 수필 중 가장 짝하면서도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자가 롱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스무 살 시절 베니건스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저자가 이 식당에서 일하게 된 첫날, 매니저는 저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저자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남이 먹던 더러운 접시에 입을 갖다 대겠냐고 매니저에게 바로 따졌다. 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일곱 시간 동안이나 식사 시간도 없이 요리를 하다 보면 손님이 남긴 음식에도 눈이 가는 법이었다. 저자 역시 식사를 끝낸 손님의 접시를 볼 때마다 손님이 손도 안댄 음식이 있으면 괜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틈만 있으면 곧장 주방 문을 짓히고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먹을만한 게 있으면 입에 음식을 쓸어 담았다. 그러다가 주방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입에는 반쯤 먹다 만 감자 튀김을 문 채로 탄생을 부렸다. 저자는 그 때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너구리도 자기보다는 더 품위 있었을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때만해도 저자는 자신이 언젠가 스타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 후에도 자신이 경멸하는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오가는 한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기로 또는 식료품 직원으로 일했고 과감히 유럽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이십 대를 보냈다. 그의 이십 대는 또한 게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저자가 한창 젊은 날을 보내고 있던 1980년대 미국은, 동성애자였던 저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미국 사회에 젠더 평등 의식이 별로 자리 잡지 못한 때였고 저자가

그렇게도 동경한 대중매체에서는 퀴어들을 부정적이거나 희화화된 이미지로 소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상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에이즈를 옮기는 주범이라는 주홍 글씨를 붙였지만 저자는 결코 게이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드라마에 출연하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 회고록은 퀴어로서, 재능 있는 예술인으로서 꿈과 희망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이다.

<목차>

제1장 도움

제2장 패티 루폰

제3장 파라마운트 호텔

제4장 더 윌리엄 에스퍼 스튜디오

제5장 QE2

제6장 고마운 사람들에게

제7장 좋은 몸을 가진 남자들

제8장 베니건스 레스토랑

제9장 인생의 한 번뿐인 삶

(총 19장, 이하 생략)

<저자 소개>



게리 자네티(Gary Janetti)는 미국의 인기 작가이자 프로듀서이다. 그는 <Family Guy>의 각본을 썼으며, 인기 시리즈 <Will and Grace>의 프로듀서였다. 최근에는 영국 시트콤 <Vicious>의 각본을 맡았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영국 왕실에 대한 위트 넘치는 풍자로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 출간된 그의 첫 논픽션 작품인 <Do You Mind If I Cancel?>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제목 : TO BEGIN THE WORLD OVER AGAIN

가제 : 미국 혁명 이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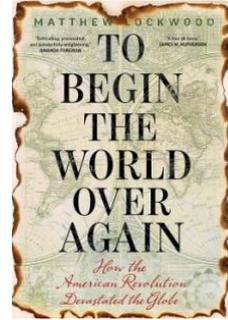
저자 : Matthew Lockwood

출판사: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역사



*** “매튜 록우드는 위대한 스토리텔러로서 한 역사적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흥미진진하고 도발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 『Georgiana』의 저자, 아만다 포맨”**

1775년 4월 미국 보스턴의 서쪽 교외 렉싱턴과 콩코드 부근에서 최초로 영국군과 급진파 사이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로 시작된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 본토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미국 혁명으로 이어졌다. 미국 혁명은 자국 내에 평화와 자유를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혁명 후 대영 제국의 패권은 더 강화되었고 세계 곳곳의 국가들이 이전보다 더 심각한 박해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발발했고 페루에서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영국은 본격적으로 호주를 식민화하기에 이르렀다.

저자 매튜 록우드는 놀랍게도 미국 독립 전쟁의 승자는 결코 미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영제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진 것으로 보였지만 당시 영국이 미 대륙, 유럽, 아시아와 분쟁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거의 잃은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국은 미국 혁명 이후에도 자기의 자리만 지켰을 뿐 아니라 유럽의 그 어느 경쟁국가보다 더 세계적인 패권을 쥐는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쟁 후 영국은 위기에 부딪히기는커녕 미국과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제국의 질서를 재정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영국은 좀 더 새롭고 계층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대영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영국이 본토와 더 멀리 떨어진 땅을 향해 눈을 돌리도록 만든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영국은 미국과의 전쟁 덕분에 자국 국민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혁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식민지를 잃은 영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제국을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나라가 아닌 고귀하고 문명화된 제국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자는 19세기 영국 영토의 확장은 미국과의 전쟁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분석한다.

영국이 미국 혁명을 통해 얻은 이점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영국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책은 결코 아니다.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영국이 끌어 모은 이익들은 영국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을 불행에 빠트렸다. 군사적 충돌과 제국 열강들의 싸움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원치 않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미국 혁명은 어떤 이들에게는 승리를 향한 영감을 주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대재앙일 뿐이었다. 미국 혁명은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킨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라 제국들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남아메리카, 호주, 아프리카 및 크리미아의 원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혁명은 세계 곳곳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스페인, 중국,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와 같은 옛 강대국들은 이제 화려한 시절을 역사로만 간직해야 했고 인도와 아일랜드에겐 20세기 중반 전까지 독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프랑스에는 혼돈과 피의 시대가 열렸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영국, 저 멀리 있는 러시아만이 미국 혁명을 발판으로 삼아 국가를 일으켜 세울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 후 오랫동안 미국 혁명의 지정학적, 경제적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 당시 잘 교육 받은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 남긴 서신이나 기록을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지만 가난하고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들이 목소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혹은 제국주의 질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교수형에 처해야 했다. 이 책은 미국 혁명이 낳은 결과와 새롭게 재편된 제국 주의 질서 속에서 뒤엎힌 개인들의 역사에 대해 돌아 보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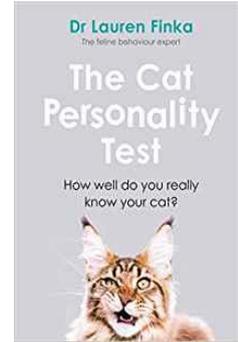
<목차>

- 제1장. 영국에 찾아온 혁명
 - 제2장. 반역죄, 공포, 반항
 - 제3장. 혁명, 반항, 아일랜드 내 파벌주의
 - 제4장. 호레이쇼 벨슨과 중남미 내 제국주의 투쟁
 - 제5장. 스페인 제국 내 반란과 혁명
 - 제6장. 유럽의 약화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정복.
 - 제7장. 인도 내 분쟁과 억류
 - 제8장.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
-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매튜 록우드 (Matthew Lockwood)는 미국 앨라배마 대학교 역사학부의 조교수이며 『The Conquest of Death: Violence』와 『Birth of the Modern English State』의 저자이다.

제목 : THE CAT PERSONALITY TEST
가제 : 내 고양이 테스트: 최고의 집사가 되는 법
저자 : Dr Lauren Finka
출판사: Ebury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1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동물



*** 충직한 집사라면 고양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법이다. 반려묘의 마음을 읽기 위한 본격 안내서**

약 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양이는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해왔다. 하지만 고작 사천 년 전에야 인간은 비로소 고양이를 알아서 병균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 준 영특한 동물 정도가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오늘 날 고양이는 개와 함께 인간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많은 개체 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도 신비한 털뭉치 동물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기도 하다. 고양이 행동학자인 로렌 핀카는 바로 이 고양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저자는 먼저 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고양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프리카 혹은 중동 지역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살렘이들이다. 고양이들은 여전히 이 야생 동물 친척들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양이들의 유전자와 외모, 행동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고양이가 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저자는 고양이들은 인간과 함께 사는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들의 뇌 구조는 여전히 사랑 받는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야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쪽에 더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이 인간과 교감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들이 필요하다. 고양이의 이런 특성은 동시에 고양이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양이는 찰스 다윈과 같은 자연 사학자들이 동물들의 정서적인 활동과 그들의 개인적 차이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주목한 최초의 동물들 중 하나였다. 고양이들의 개별적 특성들은 이들이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반응하는 패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로서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고양이들의 기원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이해함으로써 고양이들이 원하는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고양이 집사들이 재미있고 쉽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의 성격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재치 있는 문답 형식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이와 함께 각 고양이의 특성에 맞춘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자신의 집사와 사료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집

사가 TV를 보는 동안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집사를 포함한 낯선 방문자들과 한 방에 있을 때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지 등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고양이가 자신의 집사에게 어떤 마음을 가는지 분석해볼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진단에 따라 집사가 고양이에게 어떻게 다가 가면 되는지 조언도 그에 맞게 달라지는 식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충직한 집사들은 고양이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 고양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양이 기분과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고양이 행동학에 대한 최신 연구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 된 알찬 가이드이다.

<목차 소개>

제1부: 인간과 잘 지내는 고양이

- 제1장. 고양이는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제2장. 내 고양이는 어떻게 쓰다듬는 걸 더 좋아할까?
- 제3장. 당신의 고양이는 아기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있을까?

제2부. 고양이들과 잘 지내는 고양이

- 제4장. 당신의 고양이는 고양이들의 친구인가, 적인가?
- 제5장. 고양이들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할까?
- 제6장.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와 금방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제3부. 사냥꾼 기질은 갖고 태어난 고양이

- 제7장. 당신의 고양이는 장난끼가 많은 걸까, 아니면 사냥꾼 기질을 타고난 걸까?
- (총 5부, 1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렌 핀카 (Lauren Finka) 박사는 Battersea Dogs and Cats Home의 고양이 행동 및 복지 부문 고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팅엄 트렌트 대학의 연구원이다.

제목 : DETOX YOUR THOUGHTS

가제 : 생각 디톡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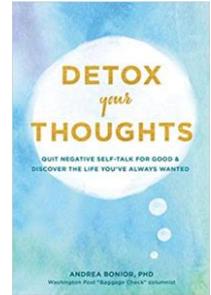
저자 : Andrea Bonior

출판사: Chronicle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머리 속에 가득한 독소를 빼내고 진취적이고 이로운 생각들로 나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몸에만 디톡스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안드레아 보니오르 박사는 정신 건강을 위해 우리의 생각도 디톡스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인지 행동 치료, 수용과 결심을 통한 치료 방법을 통해 마음을 보듬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12가지 생각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현대 과학은 임상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과 불안, 스트레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들은 그들의 감정과 관계, 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가장 강력한 적인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남아 있다.

흔히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전혀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 장애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장기화 될 경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 역시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약 또한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환자를 돕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니오르 박사는 이러한 약물만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동기를 빼앗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신 안의 고요를 깨트리는 함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과연 우리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한다.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들은 그저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우리 안을 파고 들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생각은 마침내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갇아 먹는 독이 되어버린다. 앞서 말했듯 생각 자체는

결코 우리를 옳아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줄 경우 한 사람을 독살시킬 수 있을만큼 강력해지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역기능적 사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인지 분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내 생각과 자아 감각을 분리 시키고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스스로가 만든 근거 없는 가정을 분리 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를 둘러싼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생각이 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미신 같은 믿음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결코 망칠 수 없으며 생각은 생각일 뿐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고 있고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에게 모든 고통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 소개>

조지타운 대학의 인기 강사이기도 한 안드레아 보니오르 (Andrea Bonior)박사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다. 미국의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인 버즈 피드 (BuzzFeed) 를 통해 그녀의 생각 디톡스하기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블로그인 PsychologyToday.com 은 1300 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제목 : LITTLE BOOK OF BIG EXPLORATIONS

가제 : 과학적 발견과 탐험의 역사

저자 : Jheni Osman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과학



*** 최첨단 항해 도구들부터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로켓 공학과 프로펠러의 발전까지 과학은 우리가 더 높이 더 깊이까지 탐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과학과 탐험에 관한 신선한 영감을 줄 책.**

우리는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류에게 호기심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지금과 같은 놀라운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진 지식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과학적, 기술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탐험가들 뒤에는 언제나 그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 날 암스트롱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집념, 지식이 없었더라면 결코 달에 발을 디딜 수 없었을 것이다. 1960년, 자크 피카르가 트리에스트호를 타고 당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챌린저 해연에 뛰어 들었을 때 역시 그는 혼자서 아니었다. 바다 표면에는 그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1848년 아마존 열대 우림으로 떠나 11년간 그곳에서 탐사를 했던 위대한 탐험가 헨리 월터 베이츠의 모험 또한 그 지역 가이드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 제니 오스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말했다. 아이작 뉴턴이 말했듯이 수많은 탐험가들과 과학자들 역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덕분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과학적 혁신은 우리의 기존 지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기까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실험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보통 과학적 발견 주로 실험실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윈의 경우처럼 미지의 세계를 직접 탐험하면서 획기적인 발견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찰스 다윈은 각 종들이 어떻게 진화 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라는 미지의 섬으로 떠났다. 다윈이 그 섬에서 직접 증명 자료들을 수집하고 마침내 출판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은 역시 훌륭한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 게르트 루드 벨, 에드먼드 힐러리 등의 단순한 탐험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윈의 탐험처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킨 위대한 여정과 그 뒤에서 묵묵히 공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저자는 이미 탐험이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직 우리가 이 행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다. 매년 우주를 향한 탐험계획들이 새롭게 설정 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주보다 심해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심해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인지 따져보면 우주에 가본 사람만큼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세계 각 분야의 과학자들은 파푸아 뉴기니,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있는 다리엔 갭 (Darién Gap) 지역과 같은 지구 상 곳곳,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여전히 무궁무진한 과학적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저자는 오직 과학적 접근을 통한 탐험만이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적 재앙을 타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혹은 변화 시킬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함께 흥미진진한 탐험에 대해 들려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난 모험

제2부: 기록에 남지 않은 바다들 9

제3부: 바다의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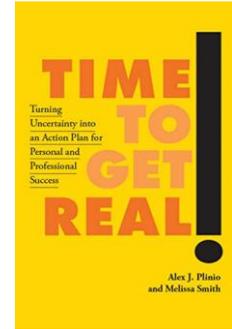
제4부: 우주 탐사

제5부: 다가 올 모험들

<저자 소개>

제니 오스만은 BBC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잡지 포커스 (Focus) 의 편집자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는 BBC 방송국의 과학 관련 라디오 진행자를 맡고 있다. 또한 『100 Ideas That Changed The World 』와 『The World's Great Wonders 』의 저자이다.

제목 : TIME TO GET REAL!
가제 : 인생의 CEO가 되는 법
저자 : Alex J. Plinio, Melissa Smith
출판사: Rutgers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20일
분량 : 2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인생과 직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세하고 친절하 안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겹다, 매일 같이 시간에 쫓기며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삶이 너무 지친다, 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기업의 성공한 CEO인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책의 공저자인 알렉스 J. 필리니오와 멜리사 스미스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털어 놓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 및 커리어 상담 전문가들이다. 두 저자의 고객의 연령대는 이제 막 직업 세계에 발을 디딘 이십 대부터 시작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 육십 대 중반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압박과 열등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전문 상담가인 저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들을 향한 두 전문가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고 직업적인 성공은 물론 개인적인 행복까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당신 인생의 CEO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조언했다.

두 저자가 제안하는 커리어 플랜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책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CEO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인생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을 위한 커리어 플랜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두 저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지적이고 신중한 사람들이 무조건 앞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밀어 부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모든 일에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 일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인생 플랜, 커리어 플랜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 책은 총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먼저 당신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흥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흥미를 찾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더 효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따져보고 개인적 자산 플랜, 은퇴 플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1, 2부를 통합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해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생과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1부, 흥미 찾기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채근 나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어떤 이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 일을 왜 좋아하는지 등등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책에 마련된 답안지에 마치 상담사 앞에서 직접 대답하듯이 구체적인 답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상담가를 만나 대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두 저자가 만난 수많은 고객들이 실제 사례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과 인생 플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책 속 챕터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구성된 책이다.

제1부: 나 자신에 대하여 당신을 당신이게 만드는 당신 삶이 가진 여러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

제1장. 흥미

제2장. 기쁨

제3장. 개인적인 가치

제4장. 관계

제5장. 삶의 목적

제6장. 삶의 균형

제2부. 일과 직업: 더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나의 직업과 경력에 대해 살펴보기

제7장. 개인적인 강점과 개발 분야

제8장. 조직 미션, 가치 그리고 문화

제9장. 자산 계획

제10장 나의 현재와 미래

제11장. 연령대와 문화를 넘나들기

<저자 소개>

알렉스 J. 필리니오 (Alex J. Plinio)와 멜리사 스미스(Melissa Smith)는 전문 경영인이자 커리어 플랜 전문가이다.